

“우리 언어에 대한 아름다움, 세계인의 가슴에 심었다”

문학·출판계 반응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문단과 출판계에서는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축하의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작가들은 한강이 광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며 문학적 감수성을 키운 경험 등이 문학적 자양분이 됐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K컬처의 열풍이 K팝, K드라마, K영화로 일색이었다면 기록문학으로서 K문학의 부상도 기대된다. 변방으로 밀려나 있던 문학이 다시 중흥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도 나왔다.

한강 작가와 함께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됐던 황석영 작가는 “한강의 이번 노벨상 수상은 고통과 수난의 치유자이며 해결자였던 한국인과 한국문학이 걸어온 길 위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다”라고 밝혔다. 황 작가는 최근 동아일보에 보낸 글에서 그같이 밝히며 “무엇보다도 한강의 작품들이 억압과 폭력 아래 스러진 사람들과 살아남은 자들의 깊은 상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와 다른 어느 누구가의 작품에 주어진 것보다 더 소중한 행운과 기쁨의 일이다”고 덧붙였다.

광주 오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작사를 한 황석영 작가는 78년 광주로 이사와 양림동에서 잠시 살았다. 이후 81년에 다시 운임동으로 이사를 해 동료들과 함께 비밀리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황석영 소설가



문순태 소설가



채희운 소설가



김신운 소설가



이미란 소설가

황석영 “한국문학이 걸어온 길 위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
문순태 “한국문학의 승리이면서 광주전남 문학의 쾌거”
이미란 “너무 기쁘고 흥분되는 일 한국 작가들에 희망을”

만들었다.

최근 영상포에 ‘타오르는 강 문학관’ 개관으로 나중에 머물고 있는 문순태 작가는 한강의 수상에 대해 “한국 문학의 승리이면서 광주전남 문학의 쾌거”라고 말했다.

문 작가는 “문학4세대인 한강은 특히 우리 지역의 문학적 풍토가 풍요로운데 이 토대 위에서 꽃을 피웠다. 광주 전남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아픔과 고통을 다루고 있다”며 “한강은 국가 폭력에 의한 고통을 당한 지역민의 상흔을 문학적으 승화시켰

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벨문학상 계기로 한국문학이 K문학으로 발돋움하겠지만 지역문학, 특히 5·18문학을 위시한 지역문학에도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향후 지역민과 행정당국도 우리 지역이 문학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설가인 채희운 전 광주여대 교수는 문학의 붐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채 교수는 “너무 잘된 일이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5·18을 비롯해 현대사에서 많은 소외와 아픔을 겪었다”며 “이번 수상이 기폭제가 돼 우리 작가들도 열심히 더 치열하게 창작을 하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신운 소설가는 “경이로운 소식에 한승원 선생

님과 따남께 꽃다발을 드리는 마음”이라고 전했으며 박이수 소설가는 “노벨문학상은 꿈이라 여겼는데 한강 작가가 받다니 정말 축하드린다”고 했다.

이미란 소설가(전 전남대 국문과 교수)는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는 일이다. 선정 사유를 보니 한강 작가의 경향을 잘 파악했다는 생각이 들더라. 한국 작가들에게 많은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멀리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노벨문학상이 광주 출신 한강 작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놀랍고 기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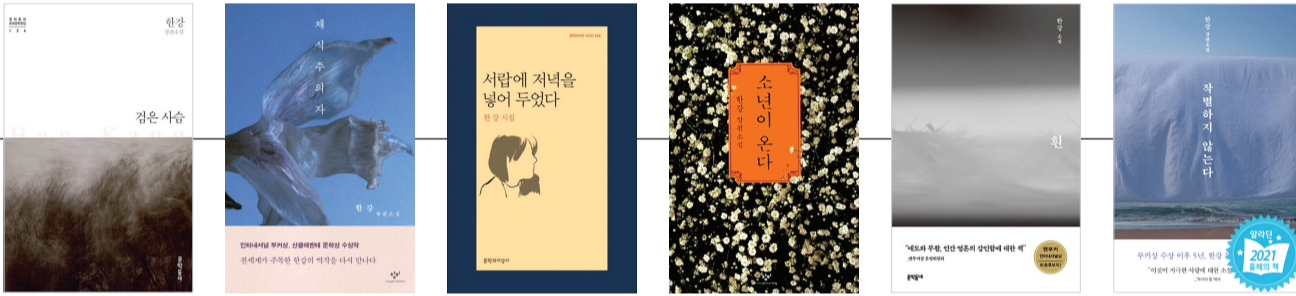
이원화 소설가는 “노벨문학상이란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다. 이제 한글, 언어에 대한 아름다움을 세계인의 가슴에 심었다는 자부심이 제가 더 설레고 기쁘다”며 “한승원 선생님 말씀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다”고 말했다.

이진 소설가는 “놀라운 일이다.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우리 지역과 남도의 큰 자부심”이라고 했다.

광주에서 문학 계간지를 발행하는 송광릉 대표는 조심스럽게 출판시장의 기대감을 비쳤다. 보통 문학의 붐이 1년 이상 간다고 했을 때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은 큰 호재인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출판계도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다”며 “우리도 더 열심히 하고 지역의 서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강의 언어들



한 편의 노래이자 삶의 고백... 운문·산문 경계 오가는 강렬한 ‘시적 산문’

치밀한 역사식과 리듬감이 맞물린 한강 작가의 문장들은 운문과 산문의 경계를 오간다.

스웨덴 함림원은 노벨상 선정 이유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한강은 현대 산문의 혁신자가 됐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양상은 한강 작가의 이력에도 관련이 있다. 그는 1993년 계간 ‘문학과 사회’에 시 ‘서울의 겨울’ 등 4편을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먼저 문단에 나왔으며 이듬해 서울신문에 단편소설 ‘붉은 달’으로 소설가로도 데뷔, 주로 소설에 천착해 왔다.

한강 소설과 시집에 담긴 문장들을 소개한다.

▲ 검은 사슴(1998년·문학동네)
“네 번쩍이는 뺨을 자르게 해다오, 그러면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마.
짐승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마를 앞으로 내밀니다. 뺨을 뺨뺨 흘리며 짐승의 아름다운 뺨을 잘라낸 광부들은 몇 발짝쯤 짐승을 데리고 가다가 다시 조건을 내걸니다.”(244쪽)

한 사람은 뺨이 푹푹하게 잘라진 짐승의 이마를 누르고, 다른 한 사람은 흑탄처럼 시커먼 짐승의 뺨을 붙잡고”(244쪽)

▲ 채식주의자(2007년·창비)
“한번만, 단 한번만 크게 소리치고 싶어. 캄캄한 창밖으로 달려 나가고 싶어. 그러면 이 덩어리가 몸

밖으로 뒤흔어나갈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아무도 날 살릴 수 없어./ 아무도 날 숨겨줄 수 없어.”(61쪽)
“이 모든 것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녀가 어떤 성스러운 것, 사람이라고도, 그렇다고 짐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식물이며 동물이며 인간, 혹은 그 중간쯤의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다.”(128쪽)

▲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2013년·문학과지성사)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가지/나는 밥을 먹었다”(‘어느 늦은 저녁 나는’ 중에서)

▲ 소년이 온다(2014년·창비)
“그러니까 형, 영혼이란 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 아니, 그건 무슨 유리 같은 건가.
우리는 투명하고 깨지기 쉽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 그러니까 우리로 만든 물건은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지. 금이 가거나 부서지면 못쓰게 되니까, 버려야 하니까.
예전에 우리 깨지지 않은 유리를 갖고 있었지. 그게 유리지 뭔지 확인도 안해본, 단단하고 투명한 진짜였지. 그러니까 우리 부서지면서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었던 걸 보여준 거지. 진짜 유리로 만들어진

인간이었다면 걸 증명할 거야.”(33쪽)
“그저 겨울이 지나간게 봄이 오드마는. 봄이 오면 늘 그랬듯 나는 다시 미치고, 여름이면 지쳐서 시름시름 앓다가 가을에 겨우 숨을 쉬었다. 그러다 겨울에는 삭신이 얼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 다시 와도 맘이 안 나도록, 햇속까지 심장까지 차가워졌다.”(190쪽)

▲ 흰(2016년·난다)
“하얗게 웃는다, 라는 표현은 (아마) 그녀의 모국어에만 있다. 아득하게, 쓸쓸하게, 부서지기 쉬운 깨끗함으로 웃는 얼굴. 또는 그런 웃음.
너는 하얗게 웃었지
가령 이렇게 쓰면 너는 조용히 견디며 웃으려 애썼던 어떤 사람이다.”(80쪽)
“어쩌면 아직도 나는 이 책과 연결되어 있다. 흔들리거나, 금이 가거나, 부서지려는 순간에 당신을,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었던 흰 것들을 생각한다. 나는 신을 믿어본 적 없으므로, 다만 이런 순간들이 간절할 기도가 된다.”(작가의 말)

▲ 작별하지 않는다(2021년·문학동네)
“눈은 거의 언제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 속력 때문일까, 아름다움 때문일까? 영원처럼 느린 속력으로 눈송이들이 허공에서 떨어질 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뚜렷하게 구별된다. 어떤 사실들은 무섭도록 분명해진다.”(44-45쪽)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2009년 임우성 감독 영화 ‘채식주의자’도 재조명

다양한 상징·알레고리로 빛어낸 예술작품

광주 출신 작가 한강이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예술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작품 관심과 맞물려 2차 창작물인 영화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2016년 맨부커상까지 안긴 ‘채식주의자’가 대표적이다. 이 소설은 2009년 임우성 감독에 의해 동명 작품으로 영화화된 바 있다.

개봉 당시 부산국제영화제 호평작, 선댄스영화제 초청작 등 이목을 끌었으나 작가주의 맥락에서 오는 난해함 때문에 대중들의 호불호는 갈렸다.

기자가 다시 본 영화 ‘채식주의자’(사진)는 다양한 상징과 기호, 알레고리로 빛어낸 한 편의 예술작품으로 다가왔다. 원작의 구조에 인물 감정과 유무형의 폭력이 복잡하게 교차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작중 주인공 영혜(체민서 분)의 삶은 식물을 연상시킨다. 그녀는 육식을 강요하는 아버지 밑에서 폭력을 감내하는 한편 ‘웃매무시를 단정히 하라’는 사회적 시선을 견뎌낸다.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두게 된 ‘꿈’ 이후로 영혜의 삶은 변한다. 채식주의를 시작으로 거식증으로 이어지는 ‘거부 증상’은 세상의 폭력을 거부하는 양상으로 전이된다.

3차적 시선에서 식물이 되려는 욕망을 그려내는 점도 흥미롭다.

각각의 챕터를 통해 관객은 각각 남편, 형부, 언니의 시선으로 주인공을 바라보게 된다. 이들은 저마다 ‘소수자를 핍박하는 이’, ‘소수자를 이용하는 이’, ‘소수자의 곁을 지키는 이’로 해석된다.

작품이 단일 인칭만을 따르지 않고 주변 인물까지 포괄한 점은 특장이다. 주류사회로 진입하려는 아웃사이더의 고통을 상호침투시켜 ‘어떤 것이 옳은가’라는 윤리적 딜레마를 던진다.

영화 ‘채식주의자’는 상징적 성공만을 위해 대중성과 타협하지 않은 듯하다. 흥행에는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예술영화나 사회 담론으로서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범외의 부분들을 형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영화 뿐 아니라 공연계에서도 한강 작품은 주목받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극단 INDEX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이탈리아,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연극 ‘채식주의자’를 상연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립극단 원광연 예술감독도 “수상한지 얼마 안 됐지만 한강 소설들 중에는 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흥미로운 작품이 많다. 가능하다면 무대에서 선보이고 싶다”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